



양계산업 발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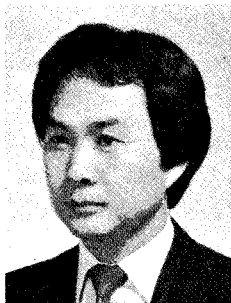
국민경제에 있어서 축산업의 위치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축산업이 농림어업생산의 부가가치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농산물 총생산액에서 축산부문은 1970년에 1,177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에는 31,662억으로 연평균 26.5%씩 증가하여 그 점유비중은 같은 기간에 14.9%에서 27.6%로 제고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중반이후 축산부문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축산물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농가에서 현금화가 보다 용이하고 소득증대에 유리하여 생산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경제면에서 축산부문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계산업은 경영구조의 불안정, 양계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의 상대적 저위, 생산비의 증가, 부화장의 난립과 무계획적 종계입식, 유통구조의 비능률, 양계산업 정책부재, 시장개방압력 등으로 그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양계산물생산농가의 소득저하는 물론 전체 양계산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될 위험에 처해있다.

더우기 축산선진국들의 축산물시장개방압력에 따라 1987년 7월부터는 가금육통조림류까지도 수입개방되었다. 이렇게 축산물의 시장개방이 전개되어 국제화되면 국내생산물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뒤져 국내산물의 시장잠식은 물론 수요창출을 둔화시킬 것이다.

양계농가는 양계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야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기간양계산물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있는 양계산업구조의 개편은 물론 시장접근으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양계산업 자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관련산업인 사료산업과 부화산업의 종사자와 관련부서는 양계산업여건의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부적 산업구조의 개편이 만시지탄 이전에 결행해야 할 것이다.



정 찬 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경영학과교수

위한 산업체제의 개혁

양계산업구조의 실상

양계산업의 경영구조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의 경영구조가 축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양계산업의 특성을 살펴볼 때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않을 수 없게된다. 그 구체적인 특성을 보면 일부 기업적 경영을 제외하고는 양계산물생산자들 대부분이 간이파이프계사를 주시설로 하는 영세규모에다 양계산물시세와 부화업자의 충돌, 사료회사의 부분별한 사료관측에 따라 후조성(候鳥性) 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적 신규참여자들은 생산규모와 확장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생산물의 출하시에 실현될 가격전망등에 대하여 예견능력이나 이들에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거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계획이나 판매시에 그들 주위의 수집상인들이나 중간도매상, 사료판매요원, 부화업자들의 유도적 권유에 순종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양계산물의 가격변동과 사료수급변동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산업을 이탈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생산과 소비

지난 15년(1972-1986)동안 축산물 국내생산을 보면 쇠고기 3.8배, 돼지고기 3.6배, 닭고기 2.4배, 계란이 2.2배로 양계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하여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량은 지난 10년(1977-1976) 동안에 육류의 소비증가는 1.8배 증가하였으나 닭고기와 계란은 각각 1.5배에 불과하고 돼지고기의 2배, 쇠고기의 1.6배에 비하면 가장낮은 소비신장을 보였다. 육류별 소비량비중도 닭고기는 1977년에 26%, 1986년에는 22%로 가장 낮으며 지난 10년동안에 4%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량 가운데 닭고기의 소비비중이 세계의 주요국가들과는 반대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은 국민1인당 소득수준이 2천불 수준에 이르렀음에 불구하고 닭 및 닭고기에 대한 유통관념은 전통적이며 진근대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가공상품의 개발 및 이들의 보급을 위한 실제적 홍보부족은 물론 가격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효율적 경영체제의 확립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계란은 축산물 가운데 가장 집약적이며 단기에 대량생산 공급이 가능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76년 이래 계란생산량은 연평균 약 6%씩 증가하고 있다. 계란소비량은 지난 15년동안 연평균 약 3.7%로 생산량의 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앞서 계란생산의 과잉현상과 소비의 정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산란계업이 타축종에 비하여 소수 채란업자에 의한 다수사육의 전업내지는 기업적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조건이 잘되지 않아 과잉·과소생산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양계산업은 생산량의 낮은 증감에도 높은 가격변동을 일으키는 불안정한 양계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1970년부터 1986년까지 계란의 가장 높은 생산변동율은 16.5%인데 반하여 가격변동율은 27.3%로 훨씬 높다. 동일기간에 연평균 생산변동율은 5.7%인데 반하여 가격변동율은 9.2로 약 두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잘 입증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육계산업에서도 유사하다.

생산과 유통구조

양계농가가 그들이 생산한 양계산물을 언제 어디에 판매할 것인가와 산물의 량, 종류 및 질에 좋은 착상을 하게되면 그 결과 양계산물의 판매로부터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된다. 따라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유통과 분배체제는 양계농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육계의 유통은 지역에 따라 60%~70%가 아직도 생계육유통으로 생계육의 유통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계장 수의 부족과 소비자 선호 때

문이고 생계유통단속의 미진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육계농가가 육계를 산지수집 반출상이나 중간도매상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질서의 문란과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의 유통구조는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상인조직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군납용의 경우에는 축협인 사육농가와 계약생산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다. 상인조직을 통한 유통경로는 6가지의 형태로 육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집반출상과 도매상에 의해 수집·집하된 후 소매상이나 행상에 의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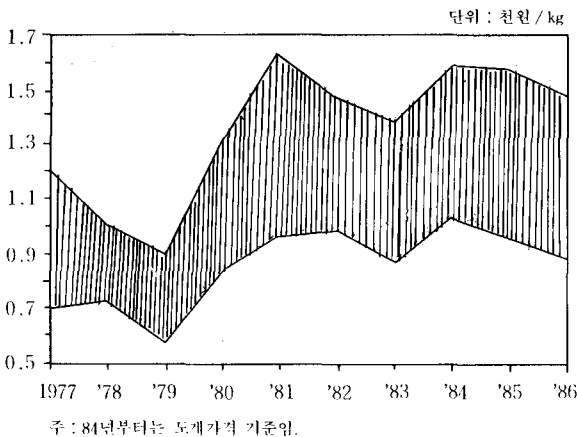
이와같이 양계산물 유통물량의 대부분이 수집반출상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현재 생산자단체가 유통단체를 단축하여 대량수요처나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시키는 물량이 극히 적다. 이러한 유통의 전근대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위생적 유통이나 상품적 가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양계농가의 수취가격과 소비자 지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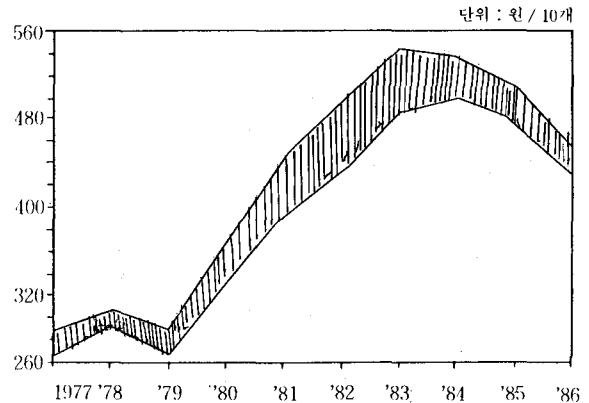
양계농가의 수취가격과 소비자의 지불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평면적 유통마진이라고 하며 마진의 발생은 세척, 선별, 포장, 저장, 보관, 수송, 홍보, 정보, 통신, 금융 등의 비용과 조세공과금, 수수료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양계산물의 유통마진은 출하시기에 따라 월별, 계절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평균차액을 살

〈그림 1〉 육계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지불가격(1977-1986)



〈그림 2〉 채란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지불가격(1977-1986)



펴보면 육계산물이 가격상승시에 마진폭이 커지는 것은 실유통비용의 발생보다 중간업자가 높은 이윤마진을 취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양계산물가격은 유통마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변하면 가격도 변한다. 즉 난가공품이나 프라이치킨등과 같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면 새로운 유통용역의 발생에 의한 마진의 상승은 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지만 소매단계에서 육계나 계란에 대한 총수요의 증가에 따른 양계농가수준에서 과생수요의 창출로 농가수취가격도 상승하여 양계농가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생산비와 사료비의 비중

사료비는 양계산물 생산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협중앙회의 1986년도 생산비조사보고에 의하면 총생산비중 사료비의 비중은 육계 68.6%이고 산란계는 64.3%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계산물 생산비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료가격의 상승은 바로 생산비의 양등에 따른 가격상승에 직결된다. 따라서 사료수급의 안정화와 저렴한 양질의 사료의 공급이야말로 양계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동안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1,899천톤에서 7,675천톤으로 증가하여 300%의 성장을 보였으며 사료시장규모도는 우리4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쌀의 총가치와 유사한 연간 1조2천억원을 돌파한지 오래되었다.



이 가운데 생산자 조직인 축협이 시장점유율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일반 사료업체 57개사에서 점유하고 있어 업체간에 과열판매전이 야기되고 있어 양계농가에게 충동적 구매를 자극하고 있으며 안정적 공급구조를 와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80%정도를 수입하고 있어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지난 2~3년동안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사료가격의 하락폭은 이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육계사료(전기)의 경우에 1979년에 125.57원/kg이었던 것이 1984년에 268.32/kg로 상승하였으나 1986년에는 239.02원/kg로 하락하였다. 산란계 역시 같은기간에 103.12원에서 215.98원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시 원료값의 하락에 따라 176.42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 처럼 사료가격의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훨씬 커서 양계농가에 사료가격하락의 직접 혜택이 적은 반면에 사료회사들은 사료값의 대폭인하 대신에 덤핑, 할인판매, 외상기간연장, 보조금지원 등으로 간접적 가격인하 경쟁을 전개하면서 시장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

양계산업구조의 개혁 경영구조의 개혁방향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재의 경영구조하에서는 양계농가는 앞으로 전개될 축산업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그 경영구조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고 양계농가의 소득증대가 가격정책에 역점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소비자들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수급조정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영의 규모화

양계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규모는 규모의 경계가 실현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생산기술 역시 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양계산업도 전업이나 기업적 경영규모의 정착을 위한 전략선택이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정부는 정책선택에 있어서 이점을 명심하고 모든 재정금융자원을 정책선택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

경영형태 선진화

양계산물의 수입개방 범위의 확대에 따른 국제화시대를 전제로 현재 미정착상태인 전업·기업적 양계경영형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것은 가격조건이나 자연적 조건이 유리하여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량이 크면 클수록 총 이윤이 증대하여 규모의 수익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업·기업적 경영은 소규모의 부업적 경영에 비하여 장비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므로써 노동효율을 높혀 단위당 노동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단위당 고정비도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생산물의 판매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고 금융상의 신뢰성을 진작할 수 있다.

산업의 계열화

양계산업은 육계와 채란업을 중심으로 부화업, 사료업, 도계업 및 가공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경제적 생산효율증진을 위한 대량생산체제의 확립, 생산물의 제일성, 대체확대, 생산기술의 발전은 물론 사료산업 및 부화업 등 연관산업의 안정 등은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양계산업 내부에서 계열화 생산체제의 구축은 생산의 효율제고를 위한 경영체제로 기업적 대규모 축산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영세한 다수의 양계산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에 의한 계열화는 가장 어려운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고 성공사례가 희소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수년동안 양계산업에서 계열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계산업의 경우 계열화 산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할려고 하는 전업·기업양계업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계열화 양계산물 생산체제의 정착을 위해 계열화에 선행되어야 할 높은 생산기술수준, 생산규모의 대형화, 생산지역 및 도계시설의 집산화, 근대적 유통체제와 소비증가, 생산자의 자생·자조조직, 철저한 검사체제의 확립, 사료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조건의 성숙에 따라 계열화 사업은 합리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집단지산화

영세한 다수의 부업·전업형태의 양계농가들을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양계업이 농가소득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원의 적정배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부업·전업형태 양계농가들의 집단지산화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생산물의 질적·양적 통제에 통일적 입장확립은 물론, 생산과 유통 양면에서 집단적 대응력을 갖추어 기업적 경영이 발휘하는 경제행위와 유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정책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발전상태에 따라 전문생산조직이나 공동이용조직으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유통체제의 전환

현존하는 양계산물의 유통체제는 하드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최소비용유통체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단체들은 물적유통활동(물적유통활동, 정보유통활동, 거래활동), 유통조성활동(금융보험활동, 규격표준화활동)에서 유통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적정하고 안정된 가격형성으로 양계농가에 충분한 소득을 귀임케 하기 위해 계산물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유통에 직접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상품성의 제고와 최소비용의 최단유통체제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즉 중소기업생산단지 협동조합 수퍼·가공업자·도매상 소비자, 대규모생산자 도매상·가공업자 소매상 소비자, 생산자와 직접 소매와 연결하는 유통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물적유통면에서 양계농가가 생산한 계산물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계산물의 공영도매 시장을 대도시에 개설하여 도매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양계산물 도매유통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양계산업 행정체제강화

양계산업을 한우와 양돈산업과는 달리 완전자유경계 시장체제에 자유방임적인 산업형태로 유지하는것보다 행정부는 유통관행, 유통조성, 물적시설투자, 사료산업과

부화업의 안정적 관리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의 유도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생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행정부는 민간기관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등급, 표준, 정보, 금융, 연구개발에 공공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구축하고 안정적 수급조절기능과 생산하구조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관장하여야 한다.

맺 는 말

축산선진국들의 생산성 향상과 과잉생산으로 이들은 교역증진을 위해 힘에 의한 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국외적 축산환경변화에 의한 국내 축산물시장도 점진적으로 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까와지고 있는 축산업의 국제화에 의한 양계산물의 수입증대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산업의 조정목표는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한다.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육계나 체단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구조로 개편되어야 하고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이 달성되어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의 산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자는 양계농가 자신들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투자이익이 없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양계산업 경영구조개편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므로서 비교열위산업으로 전락시켜 놓고 후에 비교열위 산업이니까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는 재음미해야 한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양계산업의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인 사료산업을 사료형평을 유지하는 사료구조와 안정적인 사료공급체제, 양계경영의 집단적 조직화와 선택적 계열화,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유통에 직접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상품성의 제고와 최소비용의 최단 유통체제를 개발하여 유통비 절감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양계**

중추·대추

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

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저 합니다.

육성계 전문사육장

삼 정 농 원



농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612번지
 전화 : (0347) 62-4339
 대표자 : 이 오 형